

# “인프라 갖춰진 광주가 제격”... “낙후한 전남에 더 배치해야”

## 공공기관 이전 시점2...광주시·전남도 입장은

광주시와 전남도가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관련 상호 공동 유치보다는 각자 유치전에 나설 가능성이 높을 가운데 공동혁신도시의 의미를 되새기며 공동 유치 후 공동혁신도시 강화 또는 연계를 감안한 분산배치 등의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대전·충남까지 가세하며 2차 이전 공공기관을 둘러싼 지역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광주·전남이 '각개 전투'에 나설 경우 그만큼 우수한 기관의 유치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우선 광주시와 전남도는 각각 2차 이전 대상 공공기관 가운데 목표로 하는 기관들을 발표하고, 일부 유치 전략도 공개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최근 기자단과의 차담회에서 “내부적으로 유치대상 공공기관을 어느 정도 확정했으나, 전략상 발표 단계는 아니다”면서 “이번엔 광주에 직접 미래발전 방향과 맞는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전남도와 공동 유치전에 나설 수도 있다”고 말했다.

◇광주시, 공동조성보다 자체 혁신도시 조성= 광주시는 1차 공공기관 이전 때는 시도 상생 차원에서 전남도를 도와 한전 등을 나누시에 유치한 만큼 이번엔 광주 도심에 AI(인공지능), 문화, 에너지, 자동차 산업 관련 기관 등을 유치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광주시는 에너지와 정보통신, 문화예술, 농생명, 환경생태, 과학기술, 복지노동 관련 공공기관을 타깃으로 정하고, 유치 전략을 마련 중에 있다. 시는 특히 에너지 관련 기관인 한국지역난방공사(정규직원 수 1813명, 자산규모 5조7000억원)와 한국공항공사(2227명, 4조5600억원) 등을 매력적인 기관으로 꼽고 있다. 광주시는 또 AI(인공지능) 중심도시를 구축 중이라는 점을 내세워 인공지능 관련 대표 기관인 한국데이터진흥원(48명, 168억원) 등도 유치 대상에 올려놓고 있다.

문화 관련 이전 대상 기관으로는 한국문화재단(204명, 146억원),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138명, 18억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101명, 77억원) 등을 살펴보고 있다.

시는 특히 이전 대상인 공공기관 직원들이 수준 높은 교육과 문화시설, 생활 인프라 등을 갖춘 광역시를 선호하는 만큼 '문화·인권·교육의 도시' 광주를 집중 부각하는 전략을 구사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이전 부지도 도심 한가운데 배치하는 안을 구상 중이다.

◇전남도, “낙후지역에 더 많이 배치해야” 주장-우선 30개 목표=전남도가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앞두고 9일 내놓은 입장은 인구가 급감하는 지방소멸위기

### 광주시

‘문화·인권·교육 도시’ 부각  
AI·문화·에너지·자동차...  
도심 한가운데 배치할 것

### 전남도

행정수도 이전 우선 추진  
소멸위기 지방 더 어려워져  
상호보완 방향으로 추진을

지역과 보유한 정부 공공기관 수가 적은 지역에 더 많은 공공기관을 배정해 전국이 고르게 잘 살 수 있게 정부가 토대를 닦아 줘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또한, 수도권에 인접했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연구기관·기업 등이 몰리는 충청권을 겨냥, 행정수도 이전 완성과 공공기관 2차 이전은 동시에, 상호보완적인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정의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전남도의 5대 원칙을 밝혔다. 김지사는 우선 행정수도 이전 완성과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애초 목적이 국토균형발전

인 만큼, 동시에 상호 보완적인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수도 이전 완성만 우선 추진하거나 강조하다 보면 지방소멸위기 지역은 더 어려워진다는 점에서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지방소멸위기 지역 중심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최근 40년 이상 인구가 지속해서 줄고 있는 지역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피력했다. 인구 감소로 낙후된 지역에 정부가 공공기관을 우선 배치하고 기업과 사람이 모이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게

정부 역할이자 2차 공공기관 이전 목적인 것이다.

당정이 공공기관 지역별 배정에 앞서 지역별 정부 공공기관 현황 파악과 총량에 대한 고민이 우선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제1차 공공기관 이전 때 기존에 있던 공공기관 수를 고려하지 않고 배치하면서 벌어진 지역별 격차를 이번 기회에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정부 공공기관 지역별 현황은 수도권 157개(43.7%), 충청권 84개(23.2%), 영남권 74개

(20.4%), 호남권 29개(8.0%) 등이다.

이전 대상 공공기관 확대와 정부 연구기관 전국 분산 배치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전 대상 공공기업에 금융공기업 등 금융기관, 지역 특화산업 및 우수 자원과 연관된 공공기관, 공공기관이 투자한 기업을 포함하고, 지역의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정부 연구기관을 전국에 고르게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와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문 대통령 “엄중한 상황, 여야정 협치 중요”

### 민주당 지도부 초청 간담회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워팀’ 정신을 되새기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민생위기 해결의 의지를 다졌다.

문 대통령은 9일 이낙연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국정운영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민주당 새 지도부의 출발을 축하하면서도 “지금 국가적으로 아주 위중하고 민생경제와 국민의 삶에서도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여야, 여야 정 등의 협치가 중요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난 7일 이 대표의 국회 연설과 관련, “야당의 호응 논평이 일시적인 논평에 그치지 않고 실천으로 이어져 여야 간 협치 복원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

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족돌봄휴가 연장방안이 같은 날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점을 언급하면서 “정말 기뻐다”며 “이 대표가 제안한 정책 협치의 좋은 모델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계기로 정부와 국회 간, 여야 간, 여야정 간 협치가 더 발전해 나가길 바라고, 여당이 주역이 되고 촉매 역할을 하길 바란다”며 “정부도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의 당정관계에 대해 “거의 환상적이라고 할 만큼 좋은 관계라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여러 어려움을 겪으면서 국난 극복 대책을 함께해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오는 10일 비상경제회의에서 4차 추경안, 긴급재난지원 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소개한 뒤 “국난 극복에 있

어 당정 간 하나 되는 마음으로 임해 나간다면 국민들에게 희망이 되고 국난 극복의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대표는 “당정정은 운명 공동체고, 당은 그 축의 하나”라면서 “책임을 다 하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대표는 이어 “국민들이 워낙 상처를 받고 있다”며 “정치권이 이 시기에라도 연대와 협력을 보이는 것이 국난 앞에 신음하는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말했다. 특히, 이 대표는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회동을 추진해줬으면 한다”며 “또는 일대일 회담이어도 좋다”고 제안했다.

이 대표가 언급한 ‘일대일 회담’이란 문 대통령과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회담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 지구에게 인간은 바이러스일까



김은영의  
‘그림 생각’

(328) 태풍

정말 그렇게 거대한 파도는 처음 보았다. 엄청난 속도의 강풍을 동반한 태풍이 건물 4층 높이의 파도를 밀어 부산 해안가 간물을 덮치는 모습은 뉴스 속 현실이 아니라 마치 재난영화 한 장면 같았다. 바비에 이어 마이삭, 하이선 등 연이은 태풍에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의 막막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일 것이다.

바다의 신을 의미한다는 태풍 하이선의 위력을 보며 지구의 모든 산과 강, 바다의 신들이 화난 게 아닐까 하는 생각

이 들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이 지구에게 해를 끼치면서 못살게 굴었던 것에 대한 지구의 보복인 것 같다. 우리가 맞닥뜨린 기후변화는 인간이 자초한 불행임에 틀림없다.

일본 에도시대에 활동했던 우키요에(浮世繪)의 대가 가츠시카 호쿠사이(1760-1844)의 그 유명한 작품 ‘가나가와 해변의 높은 파도 아래’ (1832년 작)는 TV 뉴스에서 보았던 거대한 파도와 닮았다. 파도가 밀려와 부서지는 포말이 마치 공룡의 발톱처럼 날카롭게 묘사되어 금방이라도 우리를 활활 것만 같다.

거센 파도 사이로 표류하고 있는 세 척의 배에는 노 젓는 사람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 바짝 앞드려 파도에 몸을 맡기고 있다. 멀리 원경에는 눈 덮인 후지산이 보이는데, 파도 사이 부서지는 포말은 마치 후지산에 내리는 눈송이처럼 환상적이다. 호쿠사이는 해변에서 태풍



가츠시카 작 ‘가나가와 해변의...’

과 함께 밀려드는 거센 파도의 형체를 직접 보았을 것이다. 그 현장성이 파도치는 바다를 입체적으로 재현하면서 인간을 압도하는 대자연의 생생함을 감동적으로 전달해주고 있다.

이 작품은 발표하자마자 일본은 물론 유럽의 예술가들에게까지 인기를 끌면서 매혹했다. 특히 모네의 여러 그림들과 밀케의 시, 드뷔시의 교향시 ‘바다’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작품에 영감을 주었다. 우리 가까이에서는 일본식 주점 간판 그림으로도 간혹 만날 수 있을 만큼 일련의 색깔을 대표하는 작품으로도 손꼽힌다. <광주시립미술관학예관·미술사박사>

의료광고심의필 제 191202-중-102291호

www.woori-hospital.com

## 개원 17년간의 임상경험을 통한 정형외과 진료 첨단우리병원

척추, 관절 중점 치료



척추 내시경, 미세 현미경 디스크 수술 / 무릎 인공관절, 어깨 관절경 수술

다양한 치료 경험을 통해 수술의 높은 만족을 드리려 노력합니다.

대표전화 062) 970-6000

광주 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

## 신세계안과 안과전문의 분야별 진료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 신세계안과 1566-9988